

해외출장 결과 보고

2007년 6월 24일 ~ 7월 4일까지의 뉴질랜드 및 호주 출장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출장자: 선임연구위원	최 세 균(국제농업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이 대 섭(국제농업연구센터)

I. 출장개요

1. 출장건명: 한·호주/뉴질랜드 FTA 연구사업에 관련하여 호주/뉴질랜드의 FTA관련 기관 및 담당자 방문 자료수집 및 현황 파악

2. 출장목적:

- 호주 및 뉴질랜드의 농업 현황 파악
- 호주 및 뉴질랜드의 FTA추진 현황 파악 및 자료수집
- 호주 및 뉴질랜드의 농산물 무역 및 무역정책 자료 수집
- 연구기관 및 정부기관 방문을 통한 FTA 관련 자료수집

3. 출장기간

- 2007년 6월 24일(일) ~ 7월 4일(수)(9박 11일)

4. 출장자

- 선임연구위원 최 세 균(국제농업연구센터)
- 부연구위원 이 대 섭(국제농업연구센터)

5. 방문지역 및 기관

- 방문지역: 뉴질랜드 Wellington, Palmerston North, Christchurch
호주 Canberra, Sydney
- 방문단체 및 기관:
 - 뉴질랜드: Meat & Wool New Zealand, Fonterra, Ministry of New Zealand Agriculture and Forestry, New Zealand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Ministry of New Zealand Foreign Affairs and Trade, Massey University, Lincoln University.
 - 호주: Australian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ustralian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y, and Forestry, ABARE, ITS Global, Horticulture Australia Limited, Meat and Livestock Australia, 농가, 도매시장

○ 방문일정

	방문일시	비고
이동: 인천공항 → 호주시드니 → 뉴질랜드 웰링턴(15시간 소요)	6월 24일~25일	
Meat & Wool New Zealand	6월 25일 4:00PM	Wellington, NZ
Fonterra	6월 26일 10:00AM	
뉴질랜드 농림부(MAF)	6월 26일 11:30AM	
뉴질랜드 경제연구소(NZIER)	6월 26일 2:00PM	
뉴질랜드 외교부(MFAT)	6월 26일 3:30PM	
Massey 대학 농경제학과	6월 27일 10:00AM	Palmerston N. NZ
농가방문(낙농, 원예, 과수)	6월 27일 1:00PM	
Lincoln 대학 교수단	6월 28일 10:00AM	Christchurch, NZ
호주 외교부		
-FTA T/F Team	6월 29일 9:00AM	Canberra, AU
-무역분석팀	6월 29일 9:30AM	
-무역통상팀	6월 29일 10:00AM	
-동아시아국장(Mr.Baxter)	6월 29일 10:30AM	
호주 농산업자단체	6월 29일 3:00PM	
호주 생산자 시장 EPIC Center		취소(내부사정)
호주 와인 생산지	7월 1일 10:30AM	
호주 농촌경제연구원(ABARE)	7월 2일 9:00AM	
ABARE 원장, 부원장	7월 2일 10:30AM	
사립 경제연구소(ITS Global)	7월 2일 11:00AM	
호주 농림부(DAFF)	7월 2일 1:00PM	
시드니 농산물 도매시장	7월 3일 6:30AM	Sydney, AU
호주 원예·과수 법인	7월 3일 9:30AM	
호주 축산단체	7월 3일 1:00PM	
귀국: 호주 시드니 → 인천공항(11시간 소요)	7월 4일	

II. 기관 및 단체 방문 결과

1. New Zealand Meat and Wool(Wellington, New Zealand)

○ 참석자

- Dr. Scott Champion(General Manager)
- Rob Davison(Executive Director; Economic Service)
- Jessica Bensenmann(Trade Policy Analyst)

○ New Zealand Meat and Wool(이하 M&W)

- M&W는 도축하는 과정에서 농가들이 지불하는 도축세의 일정부분을 자조금 형식으로 부과하여 그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임. 기관의 주요 사업은 R&D를 통한 최신정보를 생산자들에 제공, 국내외 시장 개척, 양모의 기술적인 조언, 육제품과 양모제품에 대한 무역정책 향상, 생산자단체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경제분석을 통한 자문 담당, 생산자에 대한 교육, 위기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난자금을 통해 생산자들을 돕는 역할 등을 수행.
- 자조금 형식의 부과금(levies라 통상 칭함)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 부과함.
 - 양고기 부과금: 도축 마리당 NZ\$0.40
 - 염소고기 부과금: 도축 마리당 NZ\$0.55
 - 쇠고기 부과금(육우포함): 도축 마리당 NZ\$3.66
- M&W의 2005-2006년도에는 총 NZ\$40 million의 예산으로 이중 34%는 R&D부분에 투자하였고 26%는 시장개척, 7%는 무역정책, 9%는 지역활동, 경제분석, 전문교육, 행정, 그리고 시장의 모니터링에 지출됨.
- 유럽, 영국, 북미지역, 일본, 그리고 한국에도 지사를 두고 있음.

○ 주요 토의내용

- 뉴질랜드는 현재 비육우를 사육할 수 있는 토지의 확대가 불가능하고 곡물 비육(grain-fed)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목초비육(grass-fed)

쇠고기의 안전성 및 차별성을 바탕으로 특화된 전략으로 수출시장을 공략함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대량의 grain-fed 사육이 불가능하고 grass-fed 상품으로 차별화를 도모하여 생산의 증가가 급격히 늘어나는 생산구조를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의 시장에서 점진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 뉴질랜드 쇠고기의 생산자가격은 국가가 개입을 하거나 국내시장의 수급에 따른 균형가격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수출위주의 생산이기 때문에 국제가격이 국내가격이 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은 없음.
- 한·미 FTA가 타결됨으로 인한 파급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한국 수입쇠고기 시장에서의 과거 몇 년간 미국산 빼있는 쇠고기 수입이 금지됨에 따라 증가했던 시장점유율이 하락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고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광우병이 없는 건강하고 깨끗한 쇠고기라는 장점을 소비자들에게 인식시켜 소비를 촉진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2. Fonterra(Co-operative, Wellington, New Zealand); 낙농

○ 참석자

Ken Geard(director)

Charles Boulton(뉴질랜드 외교부직원)

○ Fonterra

- 1만 1,300명의 생산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협동조합 형태의 낙농조합으로 생산자들이 이 기관을 통해 우유를 생산에서 판매, 수출까지 하는 거대한 뉴질랜드의 낙농조합회사임.
- 회원 농가들은 4백만 두의 젖소를 사육하고 있고 농가의 평균 규모는 115ha임. 또한 농가당 평균 340마리의 젖소를 사육하여 105톤의 우유를 생산하고 있어 한국의 실정과 비교하면 대규모의 농가들로 구성되어 있음. 우유 생산중 5%만이 국내에서 소비되고 나머지 95%

는 국제시장에서 소비됨.

- 우유를 수집하여 가공 처리하고 Fonterra 브랜드로 소비시장에서 판매됨. 현재 95%의 뉴질랜드 우유를 처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5%는 다른 조합에서 특화된 상품으로 가공하여 처리하고 있음. 따라서 뉴질랜드 우유, 즉 낙농산업은 독과점적인 Fonterra에서 주도하고 있음.

○ 주요 토의내용

- 중국 San Lu지방에 지사를 설립하여 3,000 마리 정도를 사육하고 있으나 우유품질이 낮은 문제점이 있으나 기술지도 및 지속적인 투자로 품질을 개선하여 앞으로의 전망을 밝게 보고 있음.
- 95%의 뉴질랜드 낙농생산품은 수출되며 대부분 fonterra가 주도함
- 나머지 5%의 생산은 외국 자본이 투자되는 형식으로 새로운 낙농가공회사들이 설립되고 있는 중이며 대부분 milk powder를 생산하며 그 중 한 회사는 고품질의 낙농품을 생산하여 병원이나 medical 용도에 초점을 두어 부가가치를 높이는 제품 생산.
- 8월부터 초지가 조성되므로 6월 7월은 우유 생산량이 매우 적으며, 초지 방목형 낙농가들이 곡물을 기초로 하는 낙농가보다는 비용이 저렴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전망함.
- 몇몇 국가들의 관세가 높기 때문에 수출에는 한계점이 있음, 예를 들어 주요 낙농품의 관세가 일본은 360%, 캐나다 299% 그리고 한국이 176%임.
- 현재 뉴질랜드는 젖소를 기를 수 있는 면적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포화상태) 외국에 눈을 돌려 생산하는 정책이 진행되고 있고 어느 정도 까지 확장하느냐는 국제시장 가격의 전망과 Fonterra의 운영체제의 변화에 따라 상황이 변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국제가격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Fonterra에서 미래의 사업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고 특히 수요의 증가로 인한 사업의 확장이 전망되고 있음. 하지만 과거 점유하고 있던 호주 낙농시장이 호주 국산으로 대체되면서 호주에 대한 수출이 감소하는 추세임.

- 국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뉴질랜드 낙농산업은 확장될 것으로 전망됨.
- 농가 수취가격 현재 NZ\$4.40/kg - 내년에는 NZ\$5.53 기대하고 있음
- 호주 양고기 산업이 현재 가뭄으로 인해 양고기를 시장에 갑자기 공급하기 때문에 양고기 가격이 하락하는 일시적인 충격이 가해졌음. 하지만 향후 양고기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뉴질랜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함.
- 향후 개도국의 우유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뉴질랜드 낙농산업의 전망은 밝음. 또한 자유무역 협정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향후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음. 특히 중국의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중국에 공동투자 형식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소비 증가에 대처함.
- 한미 FTA에 따라 뉴질랜드 낙농산업의 한국시장 공략은 치즈시장에 대한 우려가 큼. 무역전환효과에 따른 과급영향에 우려를 나타냄.
-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과의 FTA 협상이 2008년 8월경에는 타결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긍정적인 과급효과가 뉴질랜드 낙농산업을 밝게 해주리라 전망하고 있음.

3.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MAF, Wellington, New Zealand)

○ 참석자

Alan Karr(Director, International policy)

David Allen(Senior Policy Analyst, International policy)

○ 주요 토의내용

- 뉴질랜드 농림부는 1980년대부터 생산자들에게 제공되는 보조금을 삭제하여 시장경쟁체제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에 중점을 두고 단계적으로 정부에서 제공되는 각종보조금을 철폐하여 나감. 현재는 보조금이 전무한 상태지만 국제시장에서의 뉴질랜드 농

산물의 경쟁력은 보조금을 지급할 때보다 강화되어 대부분의 농산물을 수출하는 수출국가로서 거듭나게 되었음.

- 뉴질랜드 농림부에서 주로 주관하는 사업들은 생산자들이 수출을 할 수 있는 시장접근 및 기타 제반 사항으로 보조금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지급해야하냐는 문제에서 탈피하여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출을 할 수 있게 길을 만들어 주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어 생산자와 정부간의 신뢰가 두텁게 유지되고 있음.
-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 중국, 아세안과의 FTA 협상에서 적극적인 시장공략과 시장개방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나라와의 FTA 협상 체결을 기대하고 있으며 국제부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FTA 협상에 관한 부분임.
- 하지만 현재 축산업 중 쇠고기와 낙농품에 관하여서는 이용할 수 있는 초지와 물 부족 및 기타 요소로 인해 생산 증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출량의 증가보다는 수출품의 고품질화를 추진하여 뉴질랜드 축산물을 특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

4. NZ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NZIER, Wellington, NZ)

○ 참석자

Jean-Pierre de Raad(Deputy Director)

Brian Speirs(Senior Economist)

Charles Boulton(Policy Officer, North Asia Division)

Gus Charteris(Economist, Economic Division)

○ 주요 토의내용

- NZIER은 독립적인 자문회사로 경제전반에 걸쳐 분석을 수행하여 뉴질랜드와 호주의 공공단체나 사립단체에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함. 고용인원이 많지 않아 경제적인 모형을 구축하거나 큰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못하고는 있지만 분석모형은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구축하고 있고 이는 대부분 호주의 경제전문 회사에 의뢰.
- 특히 호주의 ITS Global, 한국의 KIEP와 FTA에 관한 공동연구 프

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주요 연구사항으로는 각 분야별로 파급영향을 분석하며 이에 대한 경제적인 측면의 제안이 이루어 질것이고 한국을 포함한 호주의 연구결과와 비교하는 것으로 연구방향이 진행되고 있음. 이 연구를 위해 이용되는 경제학적 분석모형은 자체적으로 개발되지 않고 호주의 개인연구소에 용역을 부탁한 상태며 이 모형은 dynamic CGE 모형이라고는 하지만 거시부문의 변수 즉, 인구 나 다른 변수를 전망하여 쓰고 있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동태적인 분석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

- 호주의 개인 경제연구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대부분 호주의 경제 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제분석을 하는 연구소는 아님.

5. 뉴질랜드 외교부(MFAT, Wellington, New Zealand)

○ 참석자

Brian Sanders(Deputy Director, North Asia Division)

Charles Boulton(Policy Officer, North Asia Division)

Gus Charteris(Economist, Economic Division)

○ 주요 토의내용

- 한국과의 경제관계 및 사회 문화적 관계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따른 자유무역 협정은 필수 불가결하다는 입장
- 한·미 FTA의 타결로 인해 호주산이 한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및 새로운 판매 전략수립 때문에 큰 피해는 예상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에게 주어지는 40%의 관세가 15년에 걸쳐 철폐된다면 호주 및 뉴질랜드 쇠고기가 한국시장에서의 점유율이나 경쟁력이 감소할 것 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음.
- 낙농품에 대해서 한국과 뉴질랜드가 FTA를 추진하면 수출증대를 기대하고 있음.
- 과수 및 과일 시장도 뉴질랜드에게 FTA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전망하나 검역문제의 해결이 선결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

음.

- 목재산업이 나무제품을 수출하고 있지만 현재 중국의 무역량이 늘어나면서 화물선을 구하기 어려워 수송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 수출에 영향을 미쳐 양국의 교역에 있어 가격경쟁력 부분을 고려할 때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
- 궁극적으로 몇몇 농산물시장에서는 한국의 농산물 시장과는 차별화하여 한국 농산물의 출하시기와는 다른 계절적인 수출전략으로 뉴질랜드산품을 차별화하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음.

6. Massey University(Palmerston North, New Zealand)

○ 참석자

Dr. Anton Maister

Dr. Shamim Shakur

Dr. Srikanta Chatterjee

David Allen(Senior Policy Analyst, International policy)

○ 주요 토의내용

- 뉴질랜드는 현재 대부분의 농산물에 관한 관세가 없기 때문에 자유무역시장이라고 해도 무방하지만 현재 뉴질랜드가 가지고 있는 생산능력은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출을 단시간 내에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함.
- 또한 쇠고기 생산이 Grass-fed라는 점을 인식하여 유일하게 추진할 수 있는 수출전략은 광우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품과 청정하다는 전략으로 수출시장을 공략한다는 점임. 하지만 한·미 FTA가 타결됨에 따라 한국시장에서의 뉴질랜드 쇠고기 입지가 약해질 것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 몇 년 동안 한국의 소비자선호도에 익숙해져 있다는 장점을 살려 미국 및 호주산과 차별화하여 한국 쇠고기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수립함.
-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파생되는 간접영향에는 양국간의 적극적인 문화교류 및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음. 현재 뉴

질랜드는 외국인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특히 아시아에서 오는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임.

7. 매시대학 낙농시험농장 방문(Palmerston North, New Zealand)

○ 안내자: Tim Harvey -Farmer's Organisation

- NZ\$ 100만 정도가 투자된 현대식 착유 시스템을 사용하여 생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아래 사진은 세 명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500마리 이상의 젖소를 사육하여 착유를 하는 장치로 생산의 극대화의 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음.



(NZ\$1,000,000 착유기, 500마리 이상)

- Fonterra에 소속된 낙농생산지로서 현재 원유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미래에도 계속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
- 위 사진의 착유기는 500마리 이상의 젖소를 사육할 때 손익이 경제적 이라하며 500마리가 안될 경우는 아래의 사진에 있는 착유시스템을 사용, 투자대비 경제적 이윤도 고려하는 방식을 선호함.
- 하지만 이 두 착유시스템을 사용하는 농가들의 모든 젖소들이 현대화 되어 있는 생산 설비에서 사육되며 철저한 위생관리를 필수로 하

고 우유의 성분분석을 통해 양질의 우유를 생산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150~300두 가량 사육하는 생산지의 착유 시스템)

- 기본적으로 비육우와 더불어 초지에 방목을 시키며 겨울철에는 습한 기온 때문에 초지가 젖어 있어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풍부한 초지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젖소사육에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음.



(뉴질랜드 겨울철 젖소방목 초지)

8. 매시대학 원예연구소(Palmerston North, New Zealand)

○ 안내자: Steven Ray

- 주로 과수 품종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품종연구에 사용된 과수는 직접 판매를 하고 있음.
- Rent-A-Tree 프로그램: 일년에 NZ\$50을 지불하고 사과나무 한그루를 빌려주고 이곳에서 나오는 사과를 나무를 빌린 사람이 소유할 수 있음. 기본적으로 60kg의 사과를 기본무게로 정하여 이 보다 적게 생산된 나무에서는 부족분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많은 사람에게 호응을 얻고 있음.



(Rent-A-Tree Program)

- 여러 가지 과수 및 채소를 시험재배하고 있고 병충해에 관한 문제와 기타 품질문제를 다루고 있고 대부분의 채소작물은 유리온실에서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재배되고 있음.

9. Lincoln University 교수진(Christchurch, New Zealand)

○ 참석자

Dr. Caroline Saunders(학과장)

Dr. William Kaye-Blake

John Ballingall(MFAT, Deputy Director Research & Analysis Unit)

○ 주요 토의내용

- FTA 파급영향 분석도구 중에는 CGE 모형과 부분균형모형을 사용하고 있지만 현재 CGE 모형의 동태적인 분석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 자체적으로 구축된 부분균형모형으로 대부분의 경제적 파급영향 분석을 시도하고 있음.
- FTA는 현재 국제 무역에 있어 중대한 결정을 하는 기본적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많은 나라와 FTA의 체결이 국가 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WTO 협상의 문제점과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뉴질랜드에 미치는 파급영향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또한 부분균형모형에 국한하지 않고 외교부 직원들로 하여금 GTAP 연수과정을 이수하게 하여 일반균형모형에서도 분석이 가능한 체제를 갖추고 있음. 실례로 John Ballingall 외교부직원은 미국 Purdue 대학에서 진행시키고 있는 2주일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귀국한 상태임.
- 중앙대학교 상경학부 이시영 교수는 이날 뉴질랜드에서 개최되고 있는 경제에 관한 학회에 참석하여 한·미 FTA에 관한 한국 경제전반에 걸친 논문을 발표했으며 많은 뉴질랜드 경제관련 전문가들의 관심을 받았다고 함.

10. 호주 외교부(MFAT, Canberra, Australia)

○ 참석자

Mr. James Wiblin - Director of Japan & China FTA T/F

Mr. Ron Wickes - Director of Trade analysis Section

Mr. Graham Andrews - Executive Officer of Trade Negotiations

Dr. Hyung-Min Kim - Executive Officer of Trade Analysis Section

Mr. Andrew Bradly - Executive Officer of Trade Analysis Section

○ 주요 토의내용

- SPS에 관한 일반적인 무역장벽에 관해 호주는 철저한 기준을 정해 놓고 이에 위반되는 농산물은 교역할 수 없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WTO 및 FTA 협상에 따른 SPS 기준 준수에 노력.
- 호주 또한 뉴질랜드와 마찬가지로 농산물 생산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철폐하여 지난 20년 동안 철저한 자구책으로의 구조조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국제시장에서 호주 농산물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가격경쟁 및 품질경쟁을 위주로 국제시장에서의 호주산 점유율을 증가시키는 정책이 주를 이룰 것.
- 현재 호주에서는 농업경제에 관한 연구팀(ABARE)에서 자체 구축한 dynamic GTAP 모형을 근거로 과급영향 분석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을 것이라 전망함.
- 호주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농산물 분야에서 한국과의 FTA 체결 시 수출증대 및 기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호주 농산물이 한국 국내시장에서 한국 농산물과 직접적인 경쟁을 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고 있음. 특히 쇠고기는 한우시장과 차별화되어 다른 수출국들과의 경쟁관계를 주목하고 있고 한우시장과는 별개의 시장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임.
- FTA 체결시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며 또한 한·미 FTA가 타결됨에 따라 한국시장에서 그 동안 미국 상품과 경쟁관계에 있던 상품들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으로 보아 국회비준 및 기타 사항들을 주목하고 있는 실정이며 한국과의 FTA 협상이 빠른 시일에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음.
- 현재 중국 및 일본과의 FTA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협상전략 및 기타 필요한 협상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타결되리라 확신하고 있음.

11. Peter Baxter 면담(First Assistant Secretary, North Asia Division)

○ 참석자

Mr. James Wiblin - Director of Japan & China FTA T/F

Mr. Graham Andrews - Executive Officer of Trade Negotiations

Alexandra Borthwick - Manager of Japan & Korea Section, MAFF

- 한국과의 오랜 동맹의 역사를 토대로 문화교류 및 무역의 자유화는 미래를 향한 동반자 관계로서 필요한 부분이라 피력하며 국제적인 문제를 다루는 시각에서 많은 나라들이 경제 동맹을 기본으로 정치적 또는 문화 안보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어 한국과의 무역교류가 확대되길 희망.
- 현재 까지 한국의 기업들이 호주에 수출하는 산업부분의 상품들이 호주에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상품의 품질이 좋아짐으로 해서 한국 상품이 호주에서 안정된 시장을 형성해가고 있음.
- 더불어 호주 상품 특히, 쇠고기를 비롯한 다른 농산물의 한국시장에서의 점유율 증가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며, 그밖에 주목할 만한 품목으로 와인의 활약 기대.
- 두 정부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미래에는 FTA를 통한 경제 동맹과 기타 문화교류의 확대, 정치교류의 확대도 기대.
- 현재에는 가뭄문제가 몇 년 동안 심각한 국가문제로 대두되어 한국에서 할당된 쌀을 수출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하여 곡물 및 축산분야에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 가뭄관리능력이 향상되고 강우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에 걸친 문제로 생각지 않음.

12. Industrial Personnel(Canberra, Australia)

○ 참석자

Mr. David Innall - Cattle Council of Australia

Mr. Phil Goode - Dairy Australia

Mr. Scott Mitchell - National Farmers Federation

○ 주요 토의내용

- 생산자들이 농산물을 생산해서 유통 및 판매망을 확보 하는 일에 주력하는 단체들로서 주요 업무는 국내외 시장접근에 관한 제반의 업무임.
- 저품질의 농산물로는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생산자들과 협력하여 고품질의 농산물을 재배하는데 투자를 과감히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보조금이 철폐된 관계로 이 단체들도 자조금식의 부과금으로 운영.
- 단체들의 기본철학은 생산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할수록 자생력이 떨어져 전체적인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 호주는 농산물 수출국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조금 철폐로 인해 경쟁력이 상당부분 증가. 초기에는 생산자들이 보조금 철폐에 강한 반발을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산자 스스로가 이러한 정책이 호주의 농업을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게 만들어 놓았다는 인식으로 바뀜.
- 하지만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못하기 때문에 미국산 농산물과 한국시장에서의 경쟁에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 한국과의 FTA체결은 호주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전망.
- 또한 현재 호주가 직면해 있는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현상은 극복될 수는 있지만 곡물가격에 영향을 주면서 축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호주가 지니고 있는 농업에 이용될 수 있는 자원의 한계는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인식. 단체 관계자들은 호주 농산물이 한국에 수출이 되더라도 한국 농산물시장의 지각변동이나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전망. 이와 더불어 호주 농산물과 미국 농산물이 한국시장에서 경쟁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한국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 전망.

13. Winery 방문(Canberra, Australia)

○ 안내자: Ms. Karen Goldspink(wine educator)

- 소규모 winery 두 곳과 중규모 winery 두 곳을 방문.
- 자체적인 vineyard를 소유하고 있으며 자체 재배한 와인포도를 사용하여 고유의 브랜드로 판매를 하고 있으며 가격은 한 병당 AU\$20 ~ AU\$75 정도로 팔리고 있으며 식당과 같이 운영하는 곳에서는 기념품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관광 상품도 판매.
- 자체 브랜드로 세계 여러 국가로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근래에는 중국의 와인 소비가 급증하여 요구하는 물량을 납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또한 식당 및 숙박시설도 갖추고 있는 곳이 있어 가족단위의 휴식처로 알맞은 공간을 제공하면서 자체 브랜드의 판매와 홍보를 같이 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는 곳도 있음.



(Shaw Winery; 식당, 와인판매 및 기념품 판매)

14. ABARE(Canberra, Australia)

○ 참석자

Mr. Phillip Glyde - Executive Director of ABARE

Ms. Karen Schneider - deputy Executive Director of ABARE

Dr. Neil Andrews - Manager, Economic Analysis Section

Dr. Yeon Kim - Senior Research Economist

Ms. Alexandra Borthwick, Manager, Japan & Korea Section, DAFF

Mr. Bill Bowen - ITS Global

Dominic Pyne - Manager FTA Co-ordination, DAFF

Nicola Gordon-Smith - General manager, Bilateral Trade Branch

○ 주요 토의내용

- 향후 FTA체결 가능한 나라인 인도네시아와 한국에 관한 기초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본적인 무역정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호주와 관련된 FTA의 잠재적인 파급영향 및 경제적인 이익을 분석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Dynamic CGE MODEL을 분석에 사용하고 있으며 GTAP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자본재, 인구나 같은 변수를 사용하여 시간개념을 적용하였지만 연구자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동태모형은 아니고 Recursive dynamic model로 불리며 CGE 모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이 걸리는 균형상태를 찾아내는 부분에서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MOU 관계에 대한 공동연구 계획이 호주 농림부와 상의하여 9월중 결정이 날것이고 호주에서는 일반 산업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하는 경향이 있음.
- FTA에 관한 연구는 ITS라는 조직이 대외경제연구원과 공동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연구과제는 진행하지 못하고 있음.
- 농업부문에 국한된 품목별 부분균형모형 등의 연구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임.

- 양고기와 쇠고기에 관한 품질향상에 주력하고 있으며 향후 쇠고기 수출은 품질향상 및 가격 경쟁력으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함.
- 미국의 한국시장과 일본시장에 대한 수출금지조치와 관련하여 금지조치가 해제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에 관련하여 호주 생산자들은 특정부위에 대한 일본 및 한국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지만 미국 생산자들은 특정부위보다는 갈비나 등심부위에 중점을 두고 있어 미국 제품의 수입이 허용될 경우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함.
- 사과, 오렌지, 포도 등이 주력 제품으로 와인 시장의 확대를 전망하며 한국으로의 수출증대를 전망.
- 중국 시장은 고소득층을 겨냥한 와인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수출국 중 프랑스와 경쟁하고 있고 칠레와인은 중국 전통주와 섞어서 시장에 나가고 있는 실정 이라함.
- 곡물시장은 물 부족으로 인해 수출의 기회가 상당히 줄었으며 과수, 채소, 원예 상품들의 계절성 및 제품 차별화에 대한 내용들이 논의 됨.
- 호주에서도 생산 이력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소비시장에서까지는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아 실행하고 있지는 않고 수출시장에서의 요구가 있다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니고 있음.
- 현재 호주는 중국과 9차례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Deadline은 설정하지 않고 가까운 미래에 타결되리라 예상하지만 민감 부분인 과일 과채산업의 검역문제가 예상외로 시간이 걸리는 부분임. 호주에서는 WTO의 SPS 협정이 충분하다고 생각되지만 중국은 이와 더불어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검역제한 조치가 너무 많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또한 GCC와의 협상은 장시간 계속되고 있어 빠른 미래에 타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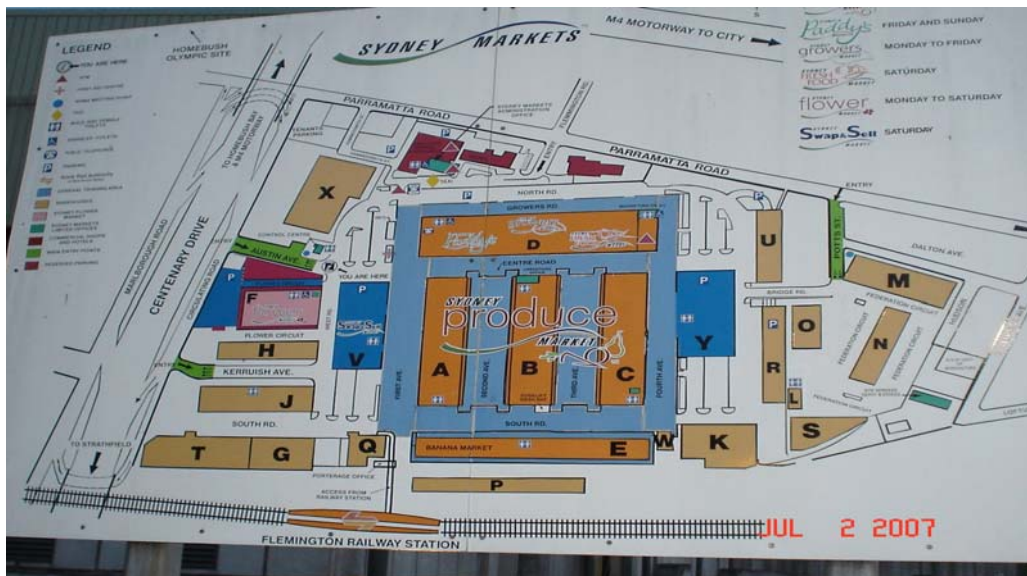
15. Sydney Wholesale Market

○ 안내자

Gerry Daras - Head of Oper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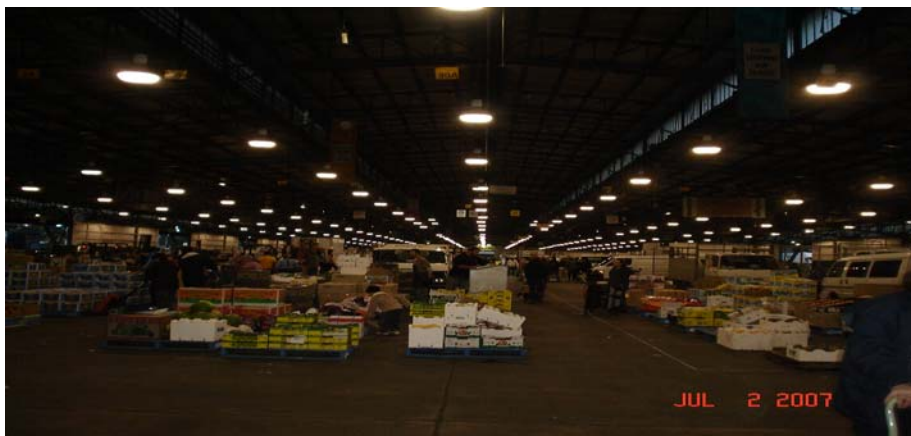
Shane Chester - Operation Manager

- 시드니 도매시장은 시드니에 있는 유일한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과일, 과채 및 화훼 상품이 거래되는 거대한 농산물 도매시장임.
- 현금으로 거래되면 위험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현금대신 현금과 바꿀 수 있는 거래명세서로 거래를 하여 나중에 현금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짐.



(시드니 농산물 도매시장 약도)

- 특히 바나나만을 실온에서 저장하여 거래하는 현대식 저장기가 있는 단지를 소유하고 있어 시드니 부근의 바나나는 모두 이곳에서 거래될 수 있는 시설 및 규모를 갖추고 있음.



(시드니 도매시장 내부전경)

- 도매시장 내부의 개별상가들이 거래하고 있는 과수작물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키위, 사과, 딸기, 오렌지, 아보카도, 포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음.



(시드니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요품목)

16. Horticulture Australia Limited

○ 참석자

Mr. John Webster - Managing Director

Mr. Stephen Winter - Market Access Coordinator

○ 주요 토의내용

- 연구 프로젝트를 200여개를 관리하고 있는 non-profit 단체로 생산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며 외국시장의 개척에 무게를 두고 있음. 국내장에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2개의 거대 소매시장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실행관세 30%가 부과되는 한국에는 대부분 식용 감자를 수출하지만 SG 관세는 304%로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는 상태. 메카데미아는 미국과 호주만 생산을 하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상품이고 망고는 Phytosanitary문제가 있어 교역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체리는 한국 정부에 검역에 관한 사항을 요청 해놓고 있는 상태라 허가가 나면 바로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음.
- 두 개의 소매 슈퍼마켓이 생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생산비보다 낮은 가격이 형성될 수가 있음. 따라서 이들 슈퍼마켓 이외의 다른 시장이 필요하고 그 시장은 수출시장이라는 인식이 강함.
- 가격이 높기 때문에 한국시장에서는 가격경쟁력보다는 품질경쟁으로 승부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되면 한국산과 경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 사과와 배는 수출할 검역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단기간에 수출하기는 불가능. 하지만 아몬드 생산량이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외 시장이 빠른 시일에 개척이 되어 아몬드 산업에 도움을 주고자 함.

17. Meat and Livestock Australia

○ 참석자

Andrew McCallum - Manager, Trade Policy

Peta MacDougall - Market Analyst Korea

Stephen Martyn. - Australian Meat Industry Council(National Processing Director)

Malcolm Foster - Australian Lot Feeders' Association(President)

○ 주요 토의내용

- Meat and Livestock Australia는 생산자가 주인인 회사로 자조금형식의 부과금으로 운영되는 회사임. 주로 시장접근, R&D, 판매연결과 같은 업무를 약 200명의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회사임.

-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특성화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한국의 양고기 시장에 대한 미래를 관망하고 있지만 현재는 쇠고기 수출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호주는 기본적으로 Grass-fed 쇠고기를 수출하지만 최근에는 물 부족사태로 인해 Grain-fed 쇠고기의 한국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또한 호주는 쇠고기 측면에서 미국과 달리 제공할 수 있는 부위가 많기 때문에 미국이 초점을 두지 않는 부위와 그 동안 쌓인 노하우가 소비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함.
- 하지만 한·미 FTA 타결로 인해 미국과의 경쟁은 필연적이며 미국이 예전의 시장점유율을 찾기 위해 강하게 노력할 것이라 예상함.
- 70'년대는 저 품질의 소고기를 수출했지만 그것은 한국이 원한 것이기도 하며 현재는 소비자 선호가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선호를 발견하여 거기에 초점을 두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미국은 갈비와 등심류의 고기를 수출하지만 호주는 대부분의 부위를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 하지만 공급을 갑자기 확대하기는 생산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

III. 호주/뉴질랜드 농산업의 주요 현황 및 시사점

1. 호주·뉴질랜드 경제 및 농업현황

- 호주는 총 면적 7.74억 ha 중 농경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6.5%(5천만 ha)이며, 총 인구는 2천만 명 정도임.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은 총인구의 4.2%(2005년 기준)이며, 농업 생산 중 60% 이상을 수출(표 1 참조).
- 뉴질랜드는 총 면적(약 2천 7백만 ha)중 12.5%(3백 4십만 ha)에 해당하는 면적이 농경지임. 총 농경지중 74%가 목초지로 구성되어 있고 총 인구는 약 4백만 명으로 이 중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약 8.2%임(표 2 참조).
- 2005년(2006년 3월 회기년도 기준) 총 농업수입은 NZ\$17.0billion로 이 중 낙농이 30%, 과수 및 과채가 14%, 쇠고기가 13%, 양 및 양고기가 11%로 주를 이루고 있음.
- 뉴질랜드의 농림축산물 수출은 1970년대에는 영국, 타 유럽국가 및 북미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유럽 국가들이 EU를 결성함으로써 유럽 내 국가들의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뉴질랜드의 수출국들이 변화 되었으며 현재 전 세계 다양한 국가들에 수출을 함으로서 수출에 대한 안정성이 높아졌으며 이 중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상당히 증가 하였다는 특징이 있음.

(표 1) 호주의 주요 경제지표

	지표	단위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면적	총면적	천ha	774,122	774,122	774,122	774,122	774,122	774,122	774,122
	토지면적	천ha	768,230	768,230	768,230	768,230	768,230	768,230	768,230
	농경지	천ha	40,300	47,600	50,127	48,124	47,575	49,080	49,742
	경지	천ha	40,097	47,304	49,807	47,799	47,240	48,743	49,402
	수원지	천ha	203	296	320	325	335	337	340
	비농경지	천ha	727,930	720,630	718,103	720,106	720,655	719,150	718,488
	토지면적 중 농경지 비중	%	5.2	6.2	6.5	6.3	6.2	6.4	6.5
인구	총인구	천명	17,941	19,071	19,293	19,512	19,728	19,942	20,155
	인구증가율	%	1.2	1.2	1.4	1.2	1.2	1.1	1.2
	농업인구	천명	897	871	867	862	858	853	849
	농촌인구	천명	2,189	1,771	1,682	1,598	1,526	1,480	1,476
	농촌인구와 총인구 대비 비중	%	12.2	9.3	8.7	8.2	7.7	7.4	7.3
	농업경제활동 인구	천명	449	440	439	437	435	433	431
	총경제활동인구	천명	8,985	9,637	9,760	9,882	10,002	10,123	10,243
	총경제활동인구 대비 비중	%	5.0	4.6	4.5	4.4	4.3	4.3	4.2
GDP	GDP(당해년가격)	현행 백만U S\$	384,105	399,664	380,564	425,295	543,648	655,629	732,499
	경제성장률 (기준가격GDP)	%	4.1	1.9	3.8	3.2	4.0	2.3	2.8
	농업부가가치	현행 백만U S\$	13,483	14,483	15,453	12,589	17,517	19,890	..
	농업부가가치 연간증가율	%	23.2	4.0	3.1	-23.5	31.3	-6.1	..
교역액	총수출액	백만달 러	53,111	63,870	63,387	65,033	71,546	86,420	105,833
	총수입액	백만달 러	61,283	71,529	63,888	72,690	89,084	109,384	125,280
	무역수지	백만달 러	-8,172	-7,659	-501	-7,657	-17,538	-22,964	-19,447

자료: 면적,인구 자료는 FAO, GDP 자료는 World Bank, 교역액 자료는 통계청 Kosis, IMF 참조

- 뉴질랜드 정부의 농업정책은 1980년 초반까지는 가격지지정책, 농업 투입재에 대한 보조를 통하여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는 보호무역 정책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보호무역 정책으로 인해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보조금 지급이 토지가격을 상승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나 규모의 확대가 어려워 생산성이 급격히 감소하는 악순환을 경험했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경제개혁 프로그램으로 농업에 대한 보조금이 철폐되며 탈 농가에게는 Exit Packages를 제공하여 규모의 확대와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자유무역 정책으로 인해 생산성이 증가하였고 시장가격의 흐름이 투명해지고 생산비가 절감되고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개입된 농업시장이 아닌 적극적인 자유무역을 추진함으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음.
- 2006년 우리나라가 호주로부터 수입한 농산물은 쇠고기, 낙농품, 그리고 사탕수수 당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 중 쇠고기는 약 16만 3천 톤이 수입되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US\$624백만으로 평균단가는 US\$3,828/톤 이며 1kg당 3천 5백 원 정도에 해당한다. 또한 사탕수수 당은 96만 톤 정도가 수입이 되었으며 금액으로는 US\$3억 6천만 입.
-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농산물은 쇠고기와 낙농품이 주를 이루며 쇠고기는 44,390톤 정도가 수입되었으며 금액은 US\$1억 5천만으로 톤당 단가는 US\$3,380로 호주산보다는 약간 낮은 가격으로 수입이 된다. 하지만 기타 치즈를 포함한 낙농품은 11,300톤 정도가 수입이 되어 호주로부터 수입(4,691톤)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양의 낙농품이 수입되고 있는 실정임.
- 우리나라가 이 두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농림축산물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수출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미미한 실정이다. 1995년 호주와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한 농림축산물의 금액은 약 US\$10억 8백만 이었지만 2006년에는 US\$23억 5천5백만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음.

(표 2) 뉴질랜드의 주요 경제지표

	지표	단위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면적	총면적	천ha	27,053	27,053	27,053	27,053	27,053	27,053	27,053
	토지면적	천ha	26,799	26,799	26,799	26,799	26,799	26,799	26,799
	농경지	천ha	3,228	3,341	3,372	3,372	3,372	3,372	3,372
	경지	천ha	1,579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수원지	천ha	1,649	1,841	1,872	1,872	1,872	1,872	1,872
	비농경지	천ha	23,571	23,458	23,427	23,427	23,427	23,427	23,427
	토지면적 중 농경지 비중	%	12.0	12.5	12.6	12.6	12.6	12.6	12.6
인구	총인구	천명	3,658	3,818	3,857	3,901	3,946	3,989	4,028
	인구증가율	%	1.5	0.6	0.6	1.5	1.8	1.3	0.9
	농업인구	천명	343	335	334	333	332	332	331
	농촌인구	천명	536	547	551	556	560	563	564
	농촌인구와 총인구 대비 비중	%	14.7	14.3	14.3	14.3	14.2	14.1	14.0
	농업경제활동 인구	천명	172	170	170	170	170	170	170
	총경제활동인구	천명	1,789	1,896	1,919	1,943	1,969	1,994	2,016
	총경제활동인구 대비 비중	%	9.6	9.0	8.9	8.7	8.6	8.5	8.4
GDP	GDP(당해년가격)	현행 백만 US\$	61,281	52,674	52,495	60,520	80,846	98,467	109,291
	경제성장률 (기준가격GDP)	%	4.2	2.1	3.9	4.7	3.6	3.7	1.9
	농업부가가치	현행 백만 US\$	4,226	4,363	4,600	..	..	..	..
	농업부가가치 연간증가율	%	7.4	2.5	1.6	-0.6	0.9	-0.4	..
교역액	총수출액	백만 달러	13,645	13,297	13,730	14,383	16,527	20,344	21,729
	총수입액	백만 달러	13,957	13,905	13,308	15,047	18,559	23,195	26,234
	무역수지	백만 달러	-312	-608	422	-664	-2,032	-2,851	-4,505

자료: 면적, 인구 자료는 FAO, GDP 자료는 World Bank, 교역액 자료는 통계청 Kosis, IMF 참조

- 따라서 이러한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호주·뉴질랜드와의 FTA협정은 이 두 나라의 대 한국 농림축산물 수출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당연한 사실로 받아 들여지고 있음.

2. 축산업

- 호주/뉴질랜드는 풍부한 초지를 바탕으로 가뭄이나 기타 자연재해가 없다면 대부분 Grass-fed 쇠고기를 생산하는 나라들이다. 따라서 광우병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쇠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물 부족과 더불어 초지조성을 확대하여 쇠고기 생산을 증가하기는 기타 자연적인 제약이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쇠고기 생산을 단기적으로 확대하기란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따라 두 나라의 축산업계는 외국(예: 중국)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쇠고기 생산을 증가 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품질은 낮아 국제 시장에서 교역되는 교역량은 적은 수준이다. 하지만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기술지도로 장기에는 고 품질의 쇠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 최근 몇 년 동안 북미에서 발생한 광우병으로 인해 호주/뉴질랜드 쇠고기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아르헨티나가 국내시장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수출을 금지하고 있어 국제시장에서의 호주/뉴질랜드 쇠고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뉴질랜드는 최근 몇 년 동안 평균 약 38만 톤의 쇠고기를 수출하고 있으며 이중 50%(2006년 5월 기준)정도가 미국의 가공용으로 수출되지만 대부분이 육우(젓소고기)며 40%정도가 아시아 국가로 수출되지만 대부분이 비육우 이다. 또한 호주는 세계 쇠고기 생산량의 4%정도를 생산하지만 세계 쇠고기 교역량 중 20%를 차지하고 있어 국제시장이 호주 쇠고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이로 인해 호주의 쇠고기 총생산량 중 약 60%에 가까운 쇠고기가 수출이 되며 국제가격이 곧 국내가격이 되어 우리나라와 같이 국내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이 불필요한 산업임.

- 또한 우리나라는 호주/뉴질랜드 쇠고기산업에 중요한 수입국으로서 광우병에 안전한 Grass-fed 쇠고기를 대부분 냉동 상태로 수입하지만 최근 몇 년간 냉장 쇠고기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수입되는 형태는 뉴질랜드로부터는 100% Grass-fed 쇠고기를 수입하며 호주로부터 수입되는 쇠고기 중 약 28%는 Grain-fed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Grass-fed 쇠고기 임.
- 호주/뉴질랜드의 양고기 수출은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 중 최대 수입국은 대만과 말레이시아로 약 56,000톤(2006년)을 수입했으며 수입액으로는 NZ\$1억 정도 이다. 중국과 일본 또한 약 42,000톤 정도의 양고기를 수입하지만 중국의 경우 품질이 낮은 양고기를 대부분 수입하는 반면 일본의 고 품질의 양고기를 수입한다. 우리나라도 양고기 소비가 미미하지만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양고기 수입이 증가할 전망이다.
- 뉴질랜드의 낙농업은 세계 우유생산의 2%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생산량의 95%를 수출하는 수출위주의 산업이다. 또한 최근 젖소 사육은 증가하지만 낙농가수는 하락하는 추세이므로 농가당 젖소 사육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생산비 절감 노력으로 인해 생산비가 대폭 감소되었지만 기대가 최근 5년 동안 80%~100%정도 상승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생산비 절감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숙련된 노동력이 부족하고 물 부족 및 오염 현상으로 깨끗한 물 공급이 어려워 더 이상의 규모의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호주의 낙농산업은 15,000개 이상의 사업체가 200억 달러의 자산을 투자하여 농장경영, 농장경영 서비스, 제조, 연구개발, 그리고 수출에 약 10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최대 부가가치 식품 산업중 하나로 상당부분이 지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호주는 만 호(10,374호, 2006년)가 조금 넘는 낙농가가 3백만 두(3,056,000두, 2006년)가 넘는 젖소를 사육하며 100억만 리터의 우유를 생산하는 호주 농업 소득기준으로 3번째로 큰 농산업이다. 또한 EU(34%)와 뉴질랜드(32%)에 이어 세 번째로(13%) 낙농제품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이고 전 세계 130여 개국으로 수출하여 27억 달

러의 수출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호주 치즈제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네덜란드, 미국,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호주 및 뉴질랜드로부터의 낙농제품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3. 원예 산업

- 원예작물을 생산하는 농가는 약 1만 3천호로 채소와 키위 농가수가 가장 많으며 생산량 중 약 50%가 수출되며 나머지 50%는 국내에서 소비며 총 농업소득의 14%를 차지하는 산업임.
- 뉴질랜드의 원예 작물은 키위, 포도주용 포도, 사과가 주를 이루며 지속적으로 급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이다. 수출은 1980년 NZ\$1억 2천만 에서 2006년에는 NZ\$24억 로 20배 이상 성장한 산업이다. 원예작물 수출 중 키위가 약 30%를 차지하고 와인 22%, 사과 14%, 가공 또는 냉동 채소 12%, 그리고 신선 채소가 9%를 차지한다. 또한 뉴질랜드는 세계 총 키위생산량의 20%를 생산하고 있으며 국제 교역량의 35%를 차지하여 세계 1위 키위 수출국임.
- 과일, 채소 그리고 화훼상품은 1996년에는 80여 개국으로 수출이 되었으나 최근 114개국으로 늘어났고 이 중 가장 큰 수출시장은 호주와 일본으로 각각 2006년 기준 NZ\$4억 2천만, NZ\$4억 2백만 의 수출이 이루어졌고 우리나라도 NZ\$8천만 정도가 뉴질랜드로부터 수입. 주 수출시장 호주, 일본, EU, 미국, 그리고 영국임.
- 특히 포도의 경우 Table 포도로 생산되는량은 극소수이며 거의 대부분이 와인생산을 목적으로 재배되며 Sauvignon Blanc종이 53%로 주를 이루며 수출 중 72%를 차지한다. 또한 와인 수출소득은 1996년 NZ\$6천 에 불과했지만 2006년 NZ\$5억 1천으로 급증하며 새로운 수출 소득원으로 부상하고 있음.
- 호주의 원예 산업은 곡물과 축산업에 이어 총 AU\$67억의 소득을 창출하며 생산량 중 15%정도를 수출하고 농업 취업자 중 25%정도가 호주의 원예 산업에 종사하고 있음.
- 특히 수출시장에서는 지난 십년 동안 30%의 성장을 이루었으며 현

재 AU\$8억 3천만의 수출로 인한 소득을 창출하며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특히 WTO 및 FTA 협상에서 새로운 시장개척에 초점을 두며 식물검역문제의 해결, 타 국가와의 R&D를 통한 협력관계를 강화시키고, 농약잔여물과 같은 민감한 문제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수출의 기회를 높이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06년 호주로부터 약 US\$1천만의 원예작물을 수입하였고 약 US\$2백만의 가공품을 포함한 원예작물을 호주로 수출. 아직까지 두 나라의 원예작물 교역은 소량에 불과하지만 호주의 생산 단체는 한국과 호주와의 FTA가 두 나라 원예 산업에 많은 변화와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음.
- 더불어 한국과 FTA 체결에 호주·뉴질랜드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두 나라 모두가 한국과의 개별적인 FTA 협상을 강력히 원하고 있음.
- 호주·뉴질랜드는 대부분의 농산물이 수출되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 수출시장이 두 나라의 농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FTA 협상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음.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호주·뉴질랜드는 유럽에서의 시장점유율감소를 아시아시장에서 대체하고 있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경쟁력강화에 주력하고 있음.